

경남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취업지원 방안¹⁾

01.

연구개요

02.

경제활동 현황

03.

구직경로 및 직장생활 어려움

04.

취업지원 정책수요 및 개선방안

- 경남의 다문화가구는 2022년 기준 23,476가구이고,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지역임. 최근 다문화가족의 △거주기간 장기화,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가족생애주기 변화, △다양한 이주배경의 증가 등 다문화가족 내집단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에서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하며, '귀화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이 약 87%이고, 남성이 약 13%로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남성 비율이 20% 내외인 지역이 양산, 김해, 거제, 진주, 함안, 창원 등 6개 시·군에 이르고 있음
- 최근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한국어 능력 등 언어와 생활 등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추게 되면서 한국 사회의 사회·경제 영역에 참여하여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리는 한국사회의 주류에 진입을 희망하고 있음
- 그러나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 사회 초기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보통 입국 1년을 전후로 한국어 소통역량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채 비숙련 노동자로 유입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음.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는 '이민자', '여성', '기혼'이라는 중첩된 한계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아 취업에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본 연구는 경남의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이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수요를 검토하여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01. 연구개요

- 결혼이민자·귀화자 생활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3년 9월 18일 ~ 10월 17일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온라인 조사(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조사)
 - 조사대상 : 경상남도 시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결혼이민자·귀화자 여성과 남성 800명

표1 설문조사 표본설계 개요

구분	조사 항목
모집단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19세 이상의 여성과 남성
표본크기	800명(유효표본 기준)
층화	성별(남,녀), 지역(시, 군)
표본배분	층별 비례배분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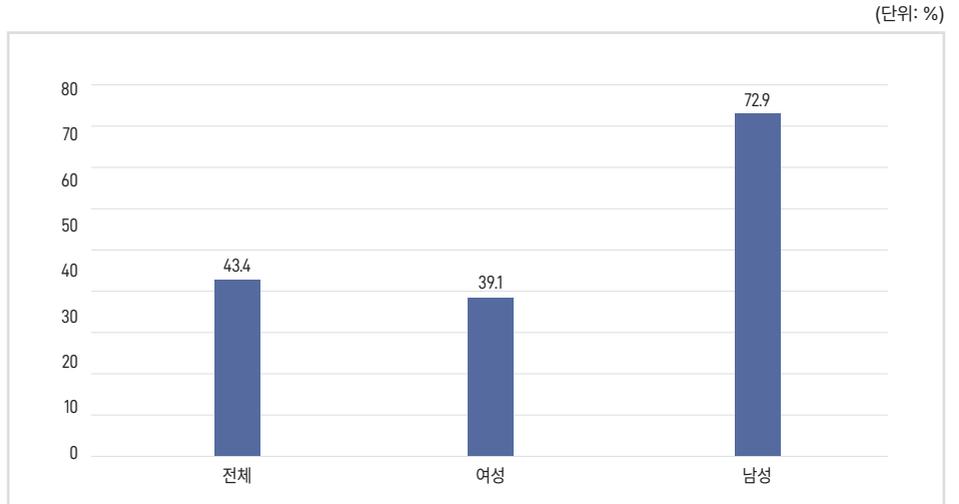
1) 본 내용은 2023년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2023 다문화가족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연구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한 것으로, 성별, 시군, 자녀유무, 한국 체류기간 등 4개의 독립변수에 대한 차이를 검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 제시하였음

02. 경제활동 현황

1) 경제활동 참여 여부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위해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3.4%가 일한 경험이 있음
- 성별 경제활동 참여율은 여성은 39.1%이고, 남성은 72.9%로 큰 격차를 보임

그림1 성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 자녀 유무별로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경제활동 참여자가 45.9%이고, 미참여자가 54.1%로 나타나 자녀 양육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체류 기간별로는 5년 미만은 14.1%, 5~10년 미만은 47.1%, 10~15년은 50.1%, 15년 이상은 54.6%로 체류 기간이 길수록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짐

그림2 자녀가 있는 당사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그림3 한국 체류기간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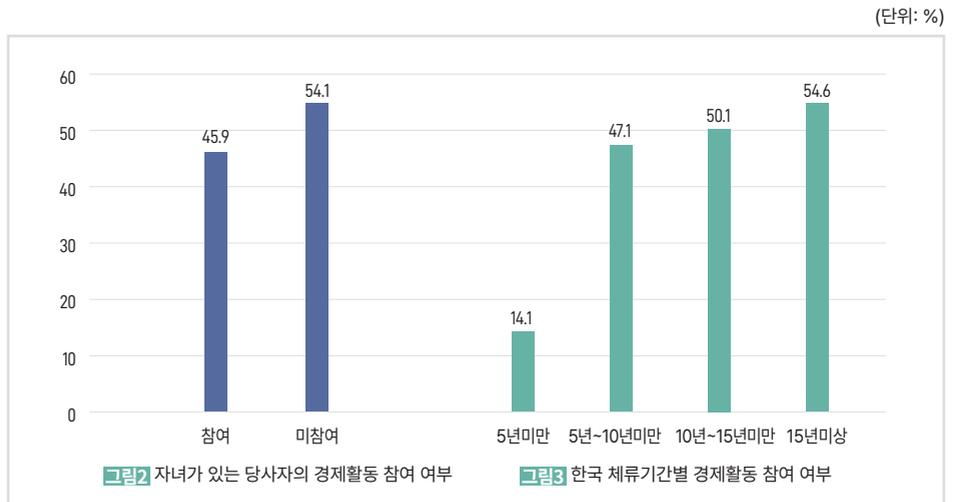


그림2 자녀가 있는 당사자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

그림3 한국 체류기간별 경제활동 참여 여부

2)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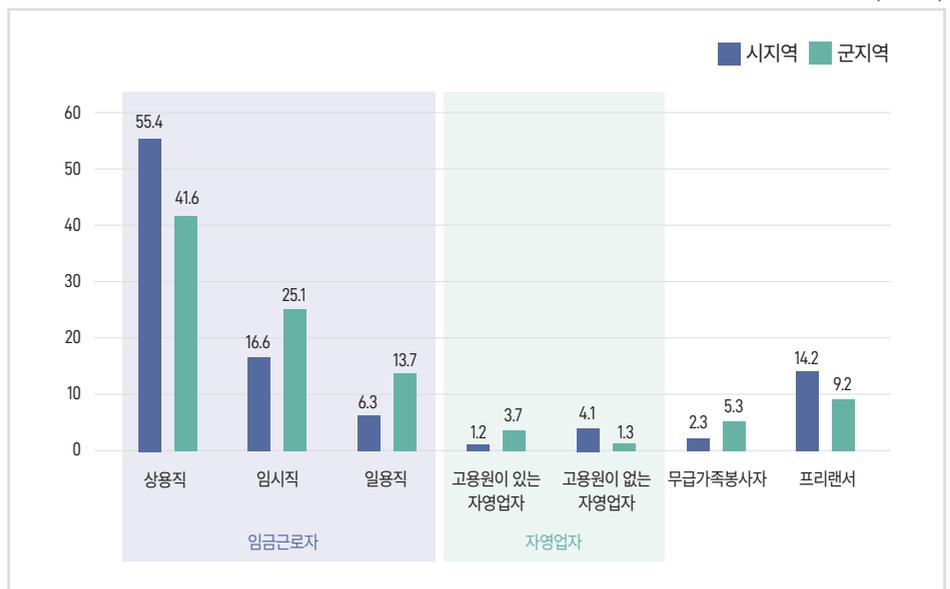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가 78.6%이고, 프리랜서(강사·통역사)가 13.3%, 자영업이 5.2%, 무급가족종사자 2.9%임
- 임금근로자 중에는 상용직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4 종사상 지위



- 종사상 지위는 거주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상용직 임금근로자는 시지역은 55.4%, 군지역은 41.6%로 시지역이 더 높음
- 군지역은 임시직·일용직이 시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시지역의 일자리 질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5 시군 지역별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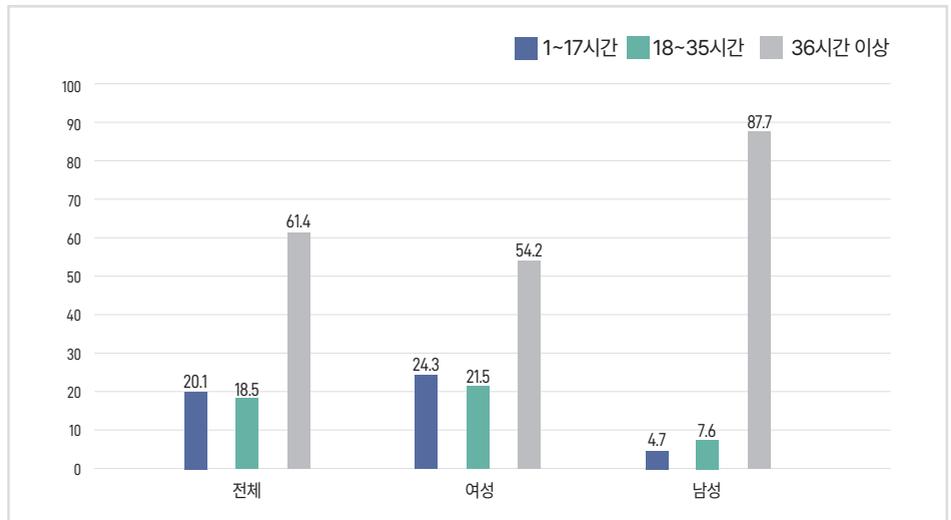
3) 근무시간 현황

■ 근무시간 현황

- 지난 일주일 간 실제 근무시간은 1~17시간 근무자가 20.1%, 18~35시간 근무자가 18.5%, 36시간 이상 근무자가 61.4%로 36시간 이상 근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36시간 이상 근무자가 54.2%, 남성은 87.7%로 남성이 33.5%p 높아 큰 격차를 보임

(단위: %)

그림6 성별 근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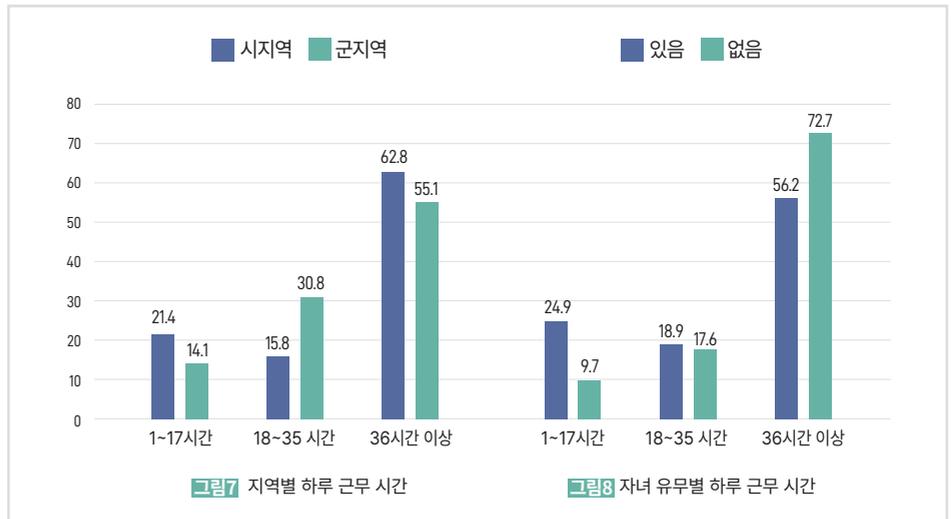


- 거주지역별로 근무시간은 36시간 이상 근무자는 시지역이 62.8%, 군지역 55.1%로 11.7%p의 격차를 보임
- 자녀 유무별로는 36시간 이상 근무자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는 56.2%,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72.7%로 16.5%p 격차를 보여 자녀가 있는 경우 노동시간이 더 짧은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

그림7 지역별 하루 근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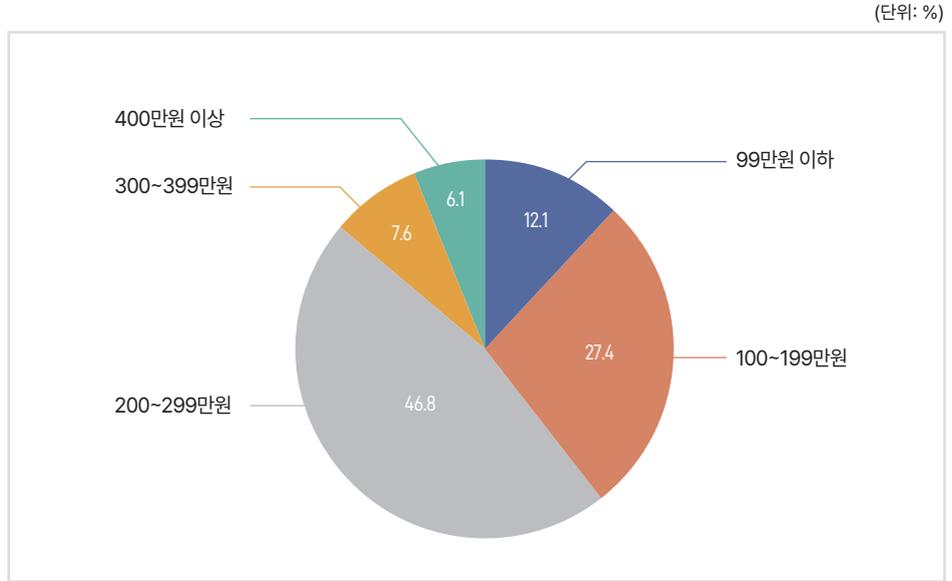
그림8 자녀 유무별 하루 근무 시간



4) 월 평균 근로소득 현황

- 경제활동 중인 응답자의 월 평균 급여는 207만원으로, 200~299만원이 46.8%로 가장 많고, 다음이 100~199만원이 27.4%이고, 99만원 미만인 응답자도 12.1%에 이릅니다

그림9 월평균 근로소득



- 성별로는 여성의 월 평균 급여는 179만원이고, 남성은 306만원으로 남성이 약 127만원이 높게 나타남
- 자녀 유무별로는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193만원,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237만원임
- 한국 체류기간별로는 5년 미만 체류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166만원으로 가장 낮고, 5~10년 미만이 223만원으로 가장 높음

그림10 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그림11 자녀유무별 월평균 근로소득

그림12 한국체류기간별 월평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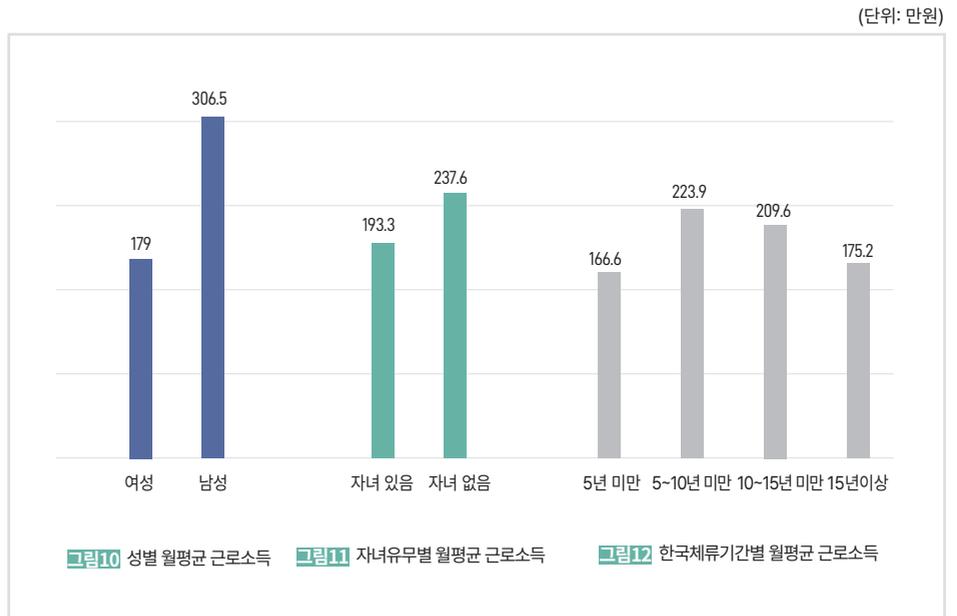


그림10 성별 월평균 근로소득

그림11 자녀유무별 월평균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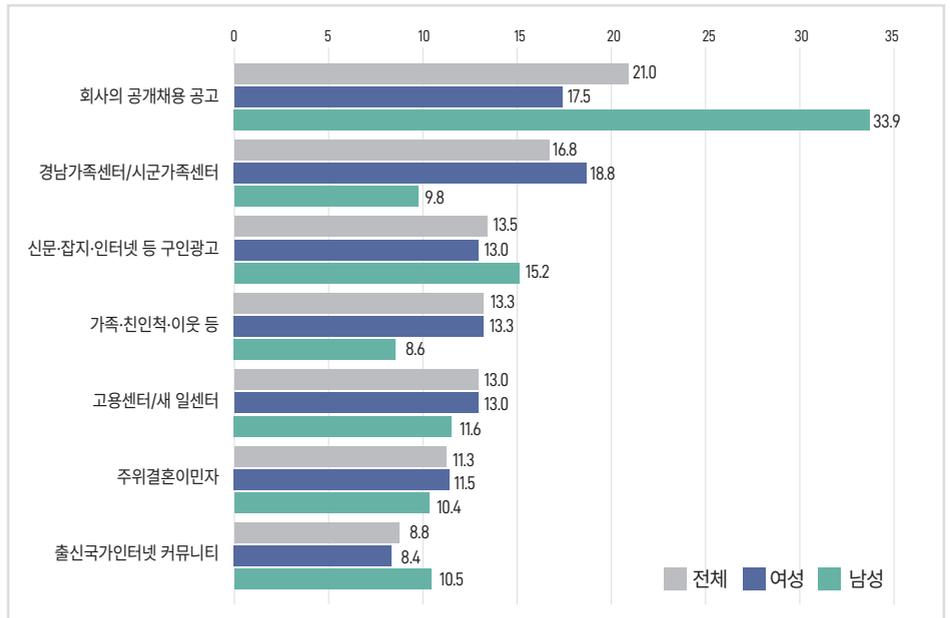
그림12 한국체류기간별 월평균 근로소득

03. 구직 경로 및 직장생활 어려움

■ 구직경로

- 취업 중인 응답자의 구직경로 1순위는 회사의 공개채용 공고가 21.0%로 가장 높고, 다음이 도센터 또는 시군가족센터가 16.8%, 신문·잡지·인터넷 등 구인광고가 13.5%, 가족·친척·이웃이 13.3%, 고용센터·새일센터 13.0% 등의 순으로 다양한 구직경로를 활용하고 있음
- 여성의 구직경로는 도센터 또는 시군가족센터가 18.8%로 가장 높고, 남성은 회사의 공개채용 공고가 33.9%로 가장 높아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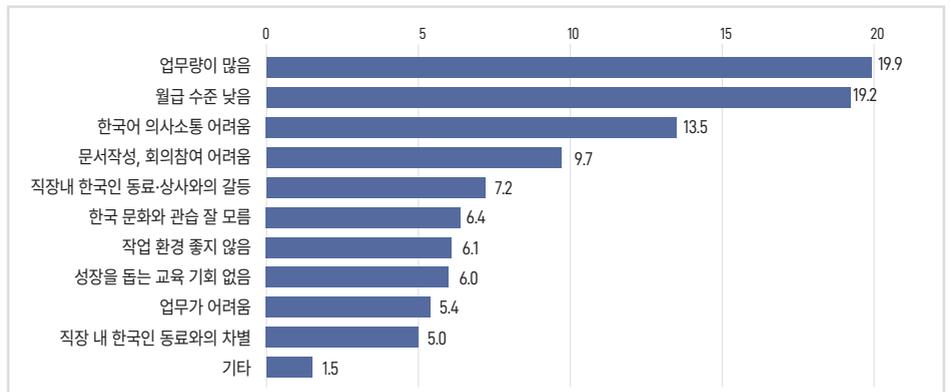
그림13 성별 구직경로



■ 직장생활 어려움

- 직장생활에서 어려운 점은 업무량이 많음이 19.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월급 수준이 낮음이 19.2%, 한국어 의사소통 어려움 13.5% 등의 순임

그림14 직장생활 어려움



04. 취업지원 정책수요 및 개선방안

■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수요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수요로 전문자격과정 지원이 2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취업 기본소양교육 20.5%, 일경험 제공이 17.1% 등의 순으로 다양한 수요가 있음
-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가장 선호하는 지원은 전문자격과정 지원이고, 다음으로 여성은 취업연계를 선호하였고, 남성은 일경험 제공을 선호하여 차이를 보임

그림15 취업지원 정책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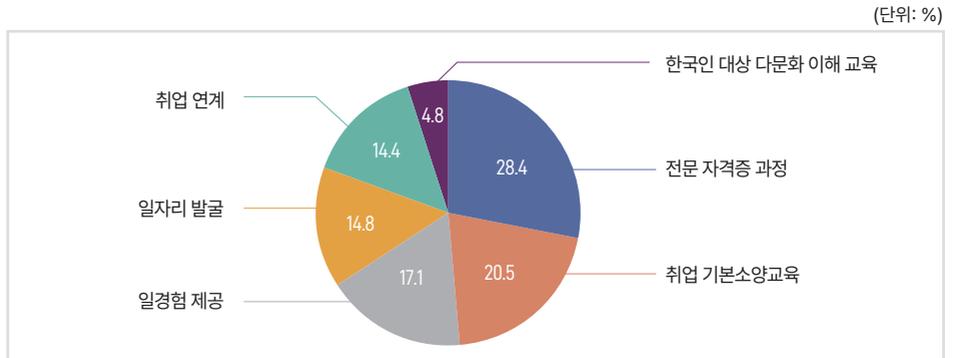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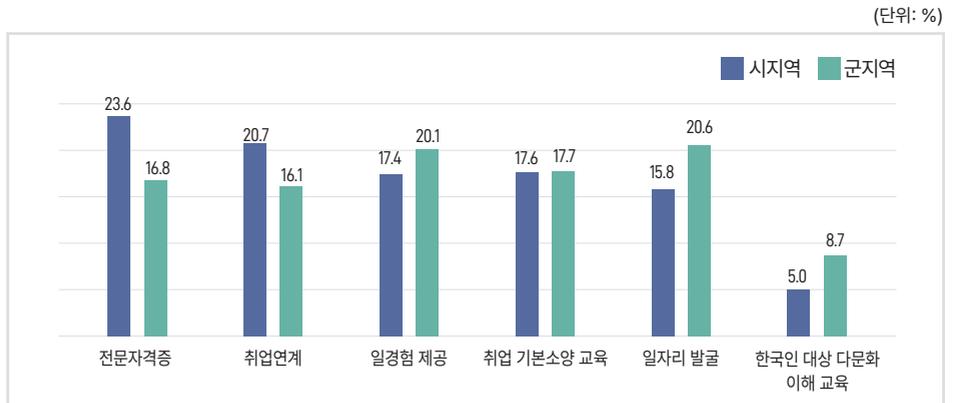


그림16 성별 취업지원 정책수요



- 거주지역별로는 시지역 거주자는 전문자격과정 지원 23.6%, 취업연계 20.7% 순으로 선호하였고, 군지역 거주자는 일자리 발굴 20.6%, 일경험 제공 20.1% 순으로 선호하여 차이를 보임

그림17 지역별 취업지원 정책수요



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인큐베이팅 사업모형(안)]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활동 현황 및 수요 분석결과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와 함께 젠더 관점을 통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한국사회 적응과 성별 불평등적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경상남도 및 각 시군 가족센터에서 취업지원과정으로 취업기초교육, 전문자격양성교육, 일경험제공, 일자리연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과정 중 일부만 운영되거나 각 단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젠더관점을 반영하여 취업기초교육 단계에서부터 전문자격양성교육, 일경험제공, 일자리연계, 사후관리에 이르는 각 단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취업 인큐베이팅 사업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함

그림18 경남형 결혼이민자·귀화자 취업 인큐베이팅 사업 모형(안)

